

광주 고위험 사업장 '예측·예비·예방 3-YES' 구축

시,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10억 투입 4대 전략·17개 과제
안전네트워크·현장점검 등 강화
근로환경 개선·안전문화 교육도

광주시가 지역 내 산업현장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2025년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현장 선제적 안전관리로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

련,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안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 △산업재해 취약부문 지원 및 현장점검 강화 △교육·캠페인 통한 안전문화 의식 확산 △안전한 일터 위한 근로환경 지원 등 4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산업재해 부문의 정책지원단과 시민실천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지역 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과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전 예방도 강화한다.

취약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단(6명)을 운영해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을 점검, 추락 등 건설현장 위

험요소 제거를 위한 지도·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또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광주시 전용 앱 '안전나침반'을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도 진행한다.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업종별, 계절별, 주요 사고유형별 핵심안전 수칙 준수 위한 캠페인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전개한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 내 영세사업장(상시근로

자 20인 미만)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혹서·혹한기 플랫폼이동노동자 안전쉼터 마련, 제조업 분야 고위험 사업장에 '3-YES(예측·예비·예방)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위험요인 제거에도 노력한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심과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 지원

7일까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전남도는 해양수산 분야 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수산가공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지역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1개 프로그램 총 31개 기업을 선발해 약 4억5700만 원 규모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한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전남지역 해양수산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제조업이나 가공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직접지원 프로그램은 전주기 육성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신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내용은 제품 개발, 홍보물 제작, 수출 준비 등으로 기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간접지원 프로그램은 신시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비용을 제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도록 19개 기업에 총 2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지원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방문, 우편(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4길 21-7,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메일(jmbic1726@naver.com)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재)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센터(www.jmbio.or.kr),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www.mokpoab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서면점검, 실태조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수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강석은전남도수산물통 가공과장은 "전남의 수산물을 활용한 블루푸드 가공품을 개발하고 창업부터 기업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해양수산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창업스타트업 사업화, 국내외 유통망 등 신시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도시 숲 현장 점검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일 미세먼지 저감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인 서구 무진푸른공원에서 서구민들과 맨발로 걷는 등 현장 점검을 하고

김영배 기자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체계 구축

매뉴얼 수립... 신속 대피 지원
트라우마 치료·이동 의료서비스

전남도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대형화에 대비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요양원 입소자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사회복지(요양·의료)시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개소로, 산불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 시점은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관자는 산불 1단계(피해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생활 시설의 경우 경중 입소자(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와상·준와상)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기물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의료시설은 병원별 재난 대비 매뉴얼에 따라 간호사, 종사자 등과 함께 인근 병원 앰블런스 등 연계해 대피토록 했다.

또한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 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안심버스와 건강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시민 곁으로 문화공연 찾아갑니다"

ACC 등 5곳서 매주 토요일 공연
시립예술단·민간단체 무대 선사

광주시에 올해도 광주 곳곳을 찾아 문화공연을 펼치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걸어서 찾아가갈 수 있도록 5개 자치구 공원에서 공연을 펼쳐 광주시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을 시민 일상에 안착시킨다.

광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5곳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연다.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는 광주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20회)과 광주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40회) 등이 총 60차례 공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광주만의 특색 있는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체감

형 문화정책'의 하나이다. 특히 광주시립예술단이 오페라, 발레, 클래식, 창작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첫 공연은 오는 5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과 푸른길공원, 쌍암공원에서 각각 열린다.

남구 푸른길공원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이 '풍류 in 광주'를 주제로 교방무,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사물놀이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동구 ACC상상마당에서는 여성 팝밴드 '원보틀'이 '북마크 온 원보틀'을 주제로 자작곡과 김광석 노래 등 커버곡들을 들려준다.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외씨 버선'이 대중음악과 흥겨운 국악이 융합한 공연 '이 순간(AT THE MOMENT)'을 선보인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불법 촬영기기 점검

오디션 공식 후원·부스 운영

전남도가 이달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경기장 불법 촬영기기인 이른바 '몰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

해 전남도, 20개 시군 대축전 담당부서, 시군 경찰서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대축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0개 시군 57개 경기장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27일 대축전 종료 시까지 지속해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경기

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거나 육안으로 철저히 확인, 불법촬영기기 발견 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도 부착한다.

한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17개 시·도, 일본 선수단 2만여 명이 참가하며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오지현 기자